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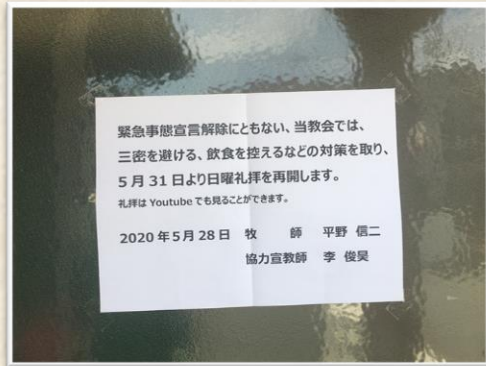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 소식

>> 예배의 기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 가정에서 들려졌던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5월 31일, 성령강림주일부터 예배를 재개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에 주의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자와 설교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좁은 예배당이지만 가급적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찬송가는 한 절만 찬송하며, 주기도문, 사도신경, 교독문은 사회자가 낭독하는 형식으로 단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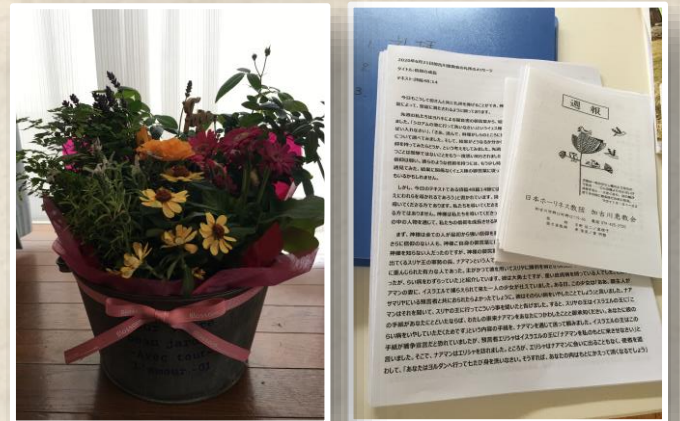
일본은 과거 1995년, 사이비 종교집단인 오진리교가 일으킨 도쿄 지하철 가스 테러 사건 이후로 종교단체를 향한 특별한 시선이 있습니다. 예배가 재개되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재개가 걱정스러운 소식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간격을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과, 식사 교제와 같은 모임은 계속해서 중지하는 가운데에 예배가 재개됨을 알리는 문구를 교회 게시판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재개 되었을 때에, 너무나 기쁜 일들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가 재개된 첫날, 저희는 성도들로부터 깜짝놀랄만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를 섬기는 저희를 위한 화분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화분의 꽃들을 옮겨심기 하면서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 받았던 설교의 원고 배부와 설교 영상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것을 이어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 전에 설교문을 읽으며 말씀을 듣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한 번 더 설교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터넷으로 설교 영상을 공유했던 것에 대한 은혜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성도가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가 재개 되었을 때에,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멈춰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기로 성도들에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셨으며, 설교문 배부와 설교 영상 인터넷 공유를 통해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복음 전도가 멈춘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복음의 확장이 있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수요일 기도회의 재개

지난 6월 24일부터 수요일 기도회도 재개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주일 예배만 드렸었는데 이제는 기도회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두 번에 걸쳐서 수요일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재개된 첫번째 수요일기도회에서는 13명의 성도들이 찾아와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수요일 기도회를 통해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 소식

지난 6월 15일 저희 가족에게 감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퍼스펙티브스 훈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선교사와의 만남'에 초청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상황에 대해 나누고,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오히려 저희가 격려받고 기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증보 기도 요청



◆나츠미 자매를 위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 기도를 부탁했던 나츠미 자매에 대한 소식입니다.

급성 맹장염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나츠미 자매는 무사히 퇴원하여서 온라인으로 진행중인 동경성서학원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일본 깊이 알아보기

길거리에서 보이는 우상들!

일본은 800만 신의 나라입니다. 우상이 많은 나라입니다. 카코가와와 도쿄처럼 큰 신사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이 길거리에 작은 우상들이 서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은 지장보살(お地蔵さん)이라고 합니다. 일본 민간 신앙에서는 길가는 행인들을 지키는 신으로 여겨지는 우상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지키는 신으로 여겨지기에 지장보살 앞에는 작은 과자와 같은 것들이 바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던 시대에 큰 불교 사찰로 참배하러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게 참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거리에 작은 형태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이 지장보살에게 기도하면 난치병이 낫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일본의 영혼들이 이러한 우상에서 벗어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주세요!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2.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3. 말씀 양육의 지혜를 주시도록
4. 카코가와 시가 주님의 도시로 변화되도록
5. 우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본이 되도록
6. 7월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 후원안내

- 연락처 : 080-4188-2604
070-4226-3122
- 이메일 :
directed@naver.com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529-49085-948421
예금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